

강감찬



강감찬(948-1031)은 고려의 애국명장이다.

그는 983년(성종 2년)에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레부시랑, 중추사, 한림학사 등을 거쳐 최고벼슬인 문하시중에까지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청백하고 검소하였던 그는 비록 체소하고 용모도 못생겼으나 결단성이 있고 매사에 엄격하였다고 한다.

강감찬은 1010년 11월 40만대군에 의한 거란의 제2차 침입당시 무능한 고려봉건통치배들의 투항주의적제기를 단호히 반대하고 령량을 재정비하여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주장을 실현시킴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하였다. 거란의 제2차침입을 물리친 후 서경류수로 있던 강감찬은 1018년 10월 거란의 새로운 침공에 대처하여 서북면행영도통사로

임명되었다. 이해 12월 거란은 제3차로 고려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다. 그의 지휘밑에 고려의 기병 1만 2 000명은 압록강의 흥화진계선에서 미리 매복하였다가 적의 주력이 그곳으로 밀려들자 준비하였던 물막이를 터쳐 적들을 일대 혼란속에 빠뜨린 다음 총공격으로 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강감찬은 무모하게 계속 기여드는 거란군의 기도를 제때에 포착하고 부원수로 하여금 녕주에 대기시켜두었던 기동무력인 기병대를 이끌고 적을 맹렬히 추격하면서 유리한 계선마다에서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안기게 하는 한편 병마판관 김종현에게는 1만명의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적을 앞질러 개경방어군에 합세하도록 하였으며 동북면 병마사가 보낸 3 300명의 응원군도 개경방어에 가담하게 하였다. 고려군은 강감찬장군의 전략적계획에 따라 총반격에로 넘어가 련주(개천)와 위주(녕변)계선에서 500여명의 적을 소탕하고 청천강계선으로 육박하였다.

고려군은 1019년 2월 대포위작전으로 거란군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준 구주전투를 벌리었다. 력사는 이 전투를 가리켜 《구주대첩》이라고 전해온다. 거란군은 제3차침입에서 전멸되다싶이 되었으며 10만가운데서 겨우 수천명만 살아 돌아갔다고 한다.

고려봉건정부는 그의 공로를 표창하여 여러번 공신칭호와 식읍을 주었으며 수태사 겸 중서령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글 리평강



강감찬이 지휘한 구주전투를 형상한 조선화 《구주싸움》